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가장 가까운 위로 - 제주 동자석, 그리고 영월 나한상〉 연계 특강

제주의 산담과 동자석

이재호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제주박물관

강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는 정시에 시작되오니 강의 5분 전까지 강의실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상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강의 중 촬영 및 녹화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 중에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제주박물관

63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Tel. 064.720.8000 Fax. 064.720.8150

<https://jeju.museum.go.kr>

© 이 자료집에 게재된 저작물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산담과 동자석

이재호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 죽은 이[亡者]의 안식처, 제주 산담

제주에서는 무덤을 ‘산’이라 한다.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산山’에 ‘무덤’의 뜻이 있으니 무덤을 산이라고 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산 주위에 쌓은 돌담을 ‘산담’이라고 한다. 돌을 쌓아 막아서 봉분에 다가서려면 담을 넘어가야 한다(그림 1). 다른 지역 무덤에는 ‘ㄱ’ 또는 ‘ㄴ’ 모양으로 봉분 뒤쪽에 담을 쌓은 곡장曲牆이 간혹 있지만, 제주의 산담처럼 네 변을 막은 담은 찾기 어렵다. 한쪽에 영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신문神門을 내었으니 산담은 그야말로 망자를 위한 울타리요 안식처였다.



그림 1. <제주도 조선시대 분묘>, 1915년, 조선총독부 유리건판사진, 국립중앙박물관(건판 2700)

제주 산담의 독특한 구조는 중산간 목장과 관련이 깊다. 오름에서 풀을 뜯는 말과 소는 무덤이 망자의 쉼터임을 알 리 없다. 이른 봄 들에 놓은 불도 무덤에는 큰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돌담을 튼튼하게 쌓아 봉분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유교 상장례喪葬禮가 제주에 뿌리내리면서 오름마다 수많은 산담이 들어섰다. 1901년 한라산 해발고도를 처음으로 측정한 독일의 기자 지크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는 “해발 500미터 정도만 되면 들판은 사라지고 수많은 무덤이 자리하고 있었다. 들판과 마찬가지로 무덤마다 검은 현무암 돌로 높이 울타리를 둘러놓았다.”라고 중산간 산담의 인상을

묘사했다.¹⁾

산담을 언제부터 쌓았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다만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산담이 야말로 ‘조선다운’ 풍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문방귀文邦貴, 고득종高得宗(1388~1452) 등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묘를 지키고 삼년상을 지냈다.²⁾ 김비金庇는 어머니를 여의자 “몸소 흙과 돌을 날라 무덤을 만들고 [躬擔土石營墳]” 상을 지냈다.³⁾ 조정에서 유교 상장례를 장려한 까닭은 단순히 효 사상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이념 아래 전국을 ‘조선’으로 묶는 ‘나라 세우기’가 시급했기에 자치 권력과 관습이 살아 있던 제주는 반드시 유교로 가르쳐야 했다. 앞서 언급한 고득종의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탐라성주耽羅星主 고신걸高臣傑의 손자인 고득종은 1404년(태종 4) 성주가 좌도지관으로 지위가 낮아지고 그마저 1445년(세종 27) 폐지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고득종은 아버지의 무덤을 단장하고 삼년상을 지내면서 새 나라 이념에 빠르게 적응했다.⁴⁾ 그 덕분인지 고득종은 1427년(세종 9) 문과에 급제하고 훗날 한성판윤까지 올랐다. 제주 산담은 ‘탐라’에서 ‘조선국 제주목’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산물이었다.

II. 심부름꾼 동자, 산담에 서다

제주 산담은 17세기 무렵 오늘날의 형식을 갖추었다(그림 2). 산담의 평면은 앞쪽이 조금 넓은 마름모꼴이 많다. 산담 안은 망자의 공간 상계上階와 후손의 제례 공간 하계下階로 나뉜다. 동자석은 하계에서도 봉분에 가장 가깝게 서서 망자의 발치를 지킨다.

동자석은 16세기에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분묘의 석물로 등장했다. 동자와 무덤의 연결고리는 ‘시동’이다. ‘시동侍童’은 귀인을 따라다니며 심부름하는 어린이, ‘시동尸童’은 제사 때 친척 어린이를 앞혀 조상신이 접신接神한 것으로 여겼던 풍습을 말한다.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망자의 혼을 받들고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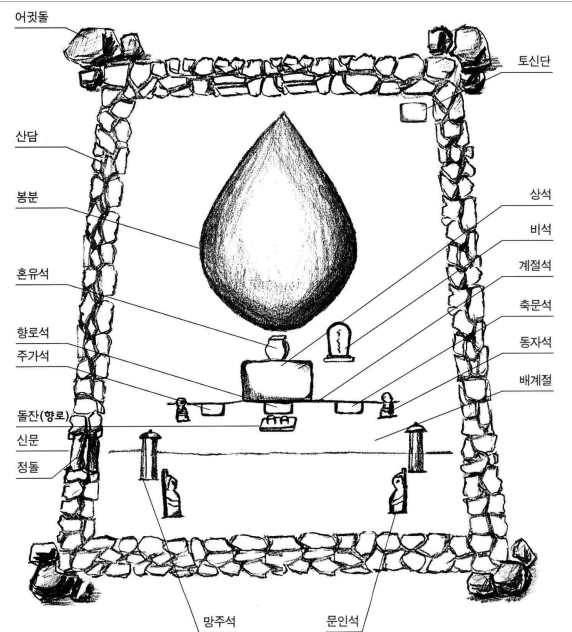


그림 2. 제주지역 분묘의 구조. 이창훈, 『제주동자석 I』(제주: 제주콤, 2007), p. 206 인용.

- 1) 지그프리트 젠테 지음, 권영경 옮김, 『독일인 젠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서울: 책과함께, 2007), p. 259.
- 2)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1413) 6월 11일;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1420) 1월 21일.
- 3)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1431) 10월 13일.
- 4) 제주시 화북이동에 고득종의 부친 고봉례高鳳禮(?~1411)의 묘로 전하는 방묘方墓가 남아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거로 능동산방묘’로 지정되어있다.

부름한다는 의미를 담아 동자석을 무덤에 세운 것이다. 경기지역 동자석은 대부분 쌍상투를 했으며, 시대가 올라갈수록 연꽃을 바치는 등 사찰 명부전冥府殿의 동자상과 모습이 흡사하다(그림 3·4). 망자와 시왕十王 사이를 오가는 시동侍童이 죽음을 위로한다는 명부전 동자상의 상징은 분묘 동자석과 서로 통한다.⁵⁾ 제주에도 수는 적지만 쌍상투 동자석이 전해서 불교와의 연관성을 더듬어볼 수 있다.



그림 3. <쌍상투 동자>, 조선 17~18세기, 화강암, 100.5×31.0×28.0cm, 국립중앙박물관, 2021년 고 이진희 기증



그림 4. <자라를 든 쌍상투 동자>, 조선 18~19세기, 나무에 칠, 52.5×32.2×21.3cm, 국립중앙박물관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1550~1632)의 후손을 비롯한 17세기 제주의 유력 가문은 산담 안에 동자석을 비롯한 석물을 갖추어 집안의 권위를 자랑했다(그림 5, 6). 18세기에 이르면 수많은 동자석이 제주 전역의 산담에 들어섰다. 같은 시기에 예제禮制를 정비하면서 본디 유교 장례법에 없던 동자석이 짧은 유행을 뒤로하고 경기도에서 사라진 것과 대조되는 일이다. 제주 동자석의 긴 생명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629년에서 1825년까지 약 200년간 지속된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은 제주 문화의 변화 속도를 크게 늦추었고, 이것이 한번 전래한 분묘 동자석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산담의 구조를 보면 망자의 영혼을 살아 있을 때처럼 모시려는 소박한 효심으로 봉분 바로 옆에 어린아이 돌사람을 세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관념은 동자석을 산담의 지신地神으로 여긴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습한 땅에 하반신을 묻고 하늘을 향해 상반신을 세운 동자석에 매령媒靈 역할을 기대했다.⁶⁾ 지신이자 매령인 동자석은 산담을 떠날 수 없다. 부서져도 산담 돌무더기에 함께

5) 김혜림, 「조선시대 童子石人 연구-16~18세기 서울·경기지역 원園과 묘墓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 32-35.

쌓았고, 무덤을 이장해도 자신이 썼던 땅 아래에 묻혔다(그림 6). 나아가 죽은 이의 영혼이 한라산에 올라 산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민간의 믿음에 따라 동자석은 신을 보좌하는 시동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제주 동자석은 불교에서 그 형태를 빌려 유교의 효심으로 산담에 들어왔으며, 고유한 민간신앙도 아우르면서 20세기 전반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그림 5. 〈두 손을 모은 동자〉, 조선 1685년경, 조면암, 85.5×35.0×23.0cm, 김대진 묘 출토, 국립제주박물관, 2023년 경주김씨파주목사공대진파 김동욱 기증



그림 6. 김대진 묘 북서쪽 산담에 묻힌 파손된 동자석,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007년 이창훈 촬영

Ⅲ. 다양하게 변모한 제주 동자석

제주 동자석은 독특한 조형미를 지녔다. 인체 조각으로 보면 발을 생략한 점이 특이하다. 상반신 아래는 거칠게 다듬어 땅에 박았다. 대부분 대좌臺座 위에 발이 새겨진 다른 지역 동자석과 다르다(그림 3·5). 이는 제주의 석공이 다른 지방에서 동자석을 직접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무덤에 풀이 웃자라면 동자석의 발치는 풀잎에 가려지기 마련이다. 제주 밖에서 이를 보고 온 사람이 석공에게 동자석을 주문하면서 그 모양을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자. “눈은 크게 뜨고 입은 굳게 다물고 손은 가지런히 모으고… 발은 안 보이더이다.”

제주 동자석의 사뭇 다른 인상은 머리 모양에서도 볼 수 있다. 제주 동자석을 대표하

6) 강창언, 「평론-제주돌문화공원의 동자석」,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탐라목석원 기증 제주동자석』(2020), p. 9.

는 머리 모양은 땡기머리이며 쪽머리, 민머리도 많아서 다른 지역의 쌍상투 동자석과 구별된다. 땡기머리는 조선의 남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일상적으로 하는 머리 모양이었다. 쪽머리는 기혼 여성을 나타내지만 제주에서는 여자아이도 쪽머리를 했기에 땡기 머리와 함께 동자석에 표현되었다. 머리 모양에서 드러나듯 제주 동자석의 성별은 남자아이로 한정되지 않으며 남녀 동자석 한 쌍이 망자를 모시기도 한다. 고만첨高萬瞻(1672~1730) 묘에는 쪽머리에 땡기를 늘어뜨린 여자아이 동자석과 땡기 머리를 한 남자아이 동자석이 마주 보고 있다. 섬세하게 조각된 여아의 이목구비와 눈빛이 이채롭다(그림 7).



그림 7. <고만첨 묘 여아 동자석>, 조선 1730년경,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2023년 필자 촬영

손에 든 지물持物은 산 사람의 마음이다. 누구든 피붙이의 죽음을 늘 곱씹으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산 사람은 자기 대신 망자를 늘 모실 수 있도록 동자석에 물건을 쥐여 주었다. 지물은 현세의 욕망을 반영한다. 제수祭需인 술과 과일, 밥을 넉넉하게 뜯 주걱과 숟가락은 죽은 뒤에라도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는 산 사람의 소망을 담았다. 무더위를 식히고 벌레를 쫓아낼 부채도 요긴하다. 망자의 뜻을 받아쓰고 후손의 학업 성취를 도우려고 붓과 벼루를 든 동자석도 있다. 홀笏과 창櫓을 든 동자석은 문인석과 무인석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그 작은 몸으로 해낼 거라고 말없이 말하는 듯하다. 국립제주박물관 야외 동자석 정원에는 새를 든 동자석이 서 있다. 새는 저승과 이승,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물이었다. 꽃을 든 동자석은 서천화원과 극락정도에 피어난 꽃처럼 망자의 부활과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뱀, 칼 등 무속신앙과 연결되는 물건을 비롯해 다채로운 지물을 동자석에서 찾을 수 있다.

분묘 석물에는 본디 엄격한 위계가 있다. 석물마다 기능과 상징도 다르다. 그중에서

동자석은 사찰 명부전 동자상의 영향을 받아 16세기에 ‘추가된’ 존재였고, 유교 예제가 완전히 갖추어진 18세기에는 그 생명을 다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17세기에 들어온 동자석이 20세기까지 계속 세워졌다. 동자석은 어떻게 제주를 대표하는 분묘 석물이 되었을까? 중앙과 단절된 시공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솔직한 마음을 동자석에 맡겼다. 죽음이 두렵고, 떠난 이가 그리고, 더 잘 모시지 못해 죄스럽고, 무덤을 자주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은 예법과 제도로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천진무구한 어린아이 모습을 돌에 새겼다. 잊되지 않은 동자는 산 사람의 분신이자 떠난 사람의 심부름꾼,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오름마다 산담마다 들어선 수많은 동자석은 그렇게 제주다운 마음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IV. 터부시된 제주 동자석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제주 분묘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이창훈은 제주 산담 안에 있는 동자석은 3,300여 점이며 도 밖으로 반출된 동자석과 박물관 소장품 수량을 고려하면 모두 5,000~6,000점이 제주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았다.⁷⁾ 삼백여 년의 전통과 방대한 수량, 표현의 독창성과 다양성은 제주 동자석의 중요한 역사성과 예술성을 증언한다. 그런데도 제주 동자석은 누려 마땅한 찬사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제주 동자석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다시 발견되고’ 있다. 제주가 낳은 동자석은 왜 제주에서 잊혔을까(그림 8·9).



그림 8. 국립제주박물관 야외 동자석 정원, 2021년 고 이건희 회장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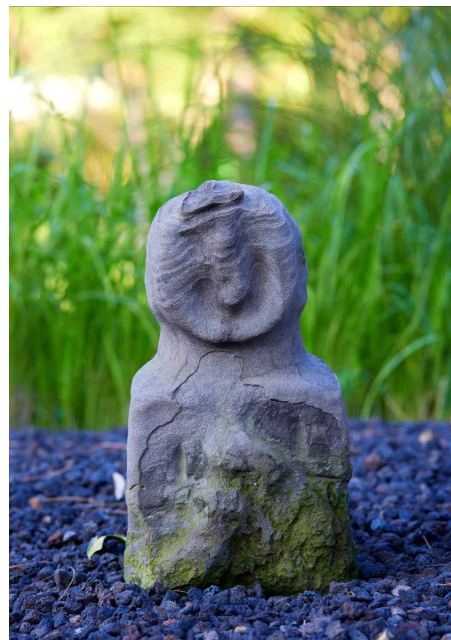


그림 9. 국립제주박물관 야외 동자석 정원에 선 풍화된 제주 동자석

7) 이창훈, 「제주의 무덤과 석상」,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돌문화 연구 성과와 과제』(2023), p. 123.

제주 동자석을 재발견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도난과 반출이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여겼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 새삼 그 부재의 크기를 느끼는 법이다. 1970년대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이문교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화물선으로 밀반출되기 직전 경찰이 압수한 동자석을 취재했다. “나는 동자석과 만남을 통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로 보호되어야 할 정신이 무엇인가를 새삼 살펴볼 수 있었다. (압수품이 보관된 용담동 폐가 마당에) 흙덩이와 쓰레기로 뒤범벅된 동자석 70여 점을 닦아내고 촬영하면서 조상의 얼까지 팔아넘길 정도로 자존 정신을 망각한 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를 고발하겠다고 다짐했다.”⁸⁾ 이처럼 일제강점기 이래 제주의 분묘 석물 중 최소 1,000여 점 이상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⁹⁾

제주 동자석이 쉽게 흩어진 배경에는 금기의 관념이 깔려 있다. 동자석이 분묘의 석물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려보자. 죽음은 마주 보기 두려운 것이어서 사람들은 시신을 지하에 묻어 산 사람이 있는 지상과 물리적으로 분리했다. 동시에, 돌무덤에 널길과 문을 내어 저승이 이승과 동등한 세계이면서도 그 성격은 명확히 나뉜다는 관념을 표현했다. 이는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고 상상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관념이었다.¹⁰⁾ 제주 산담의 신문神門은 돌무덤 문의 상징과 꼭 들어맞는다. 산담을 살짝 터서 신문으로 삼고 그 위에 정돌 두세 개를 얹어 정낭을 대신했다. 정낭이 열려 있더라도 외부인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뿐이다. 산담도 그러하다. 죽은 혼은 산담을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산 사람은 바른 날을 골라서 산담을 넘어가야 한다.¹¹⁾ 그러므로 동자석은 터부(taboo)였다. 밭머리와 오름 어디에서든 볼 수 있지만 죽은 이에게 속했기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 동자석을 정원에 옮겨두고 장식물로 감상하는 일은 제주 사람들에게 불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추석에 벌초하려고 산담을 찾은 이들이 그제야 동자석이 도난당했음을 알게 되는 일이 잦았던 것도 이러한 금제에 기인한다.

분묘의 금기는 사라지고 있다. 1973년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1994년 동법 시행령 개정은 오늘날 상장례 문화의 빠른 변화를 반영한다. 마을 공동체 의례였던 상장례는 시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산 사람이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도록 돕는 절차로 변했다.¹²⁾ 제주에서도 산담에 매장하지 않고 화장한 뒤 봉안당이나 문중묘에 유골을 담은 단지를 모시는 풍습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옛 무덤까지 개장改葬(제주에서 ‘철리[遷移]’라고도 한다)하고 있다. 이제 더는 산담도 동자석도 새로이 세워지지 않는다. 금기에서 풀린 동자석은 이제 어디에 서야 할까?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제주 동자석에 관한 학술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¹³⁾

8) 김유정, 『대지미술(Land Art), 영혼의 집-제주도 산담 연구』(제주: 제주문화연구소, 2021), p. 245.

9) 이창훈, 『제주를 떠난 제주동자석』(제주: 제주콤, 2015), pp. 9-13.

10)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서울: 웅진출판, 1995), pp. 107-109.

11) 김유정·손명철, 『제주의 민속문화 ② 제주의 무덤』(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pp. 97-99.

12) 박태호, 『장례의 역사: 고인돌부터 납골당까지, 송배와 기피의 역사』(파주: 서해문집, 2006), pp. 190-200.

13) 제주 동자석에 관한 2010년대까지의 주요 연구성과와 단행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조윤득, 「제주 석

V. 돌사람을 다시 보다

오늘날 제주 동자석은 본디의 맥락에서 멀어졌다. 산담에 서서 망자를 보살피던 동자석은 장묘문화가 바뀔에 따라 본디 의미가 빛바래고 있다. 본디 자리는 잃었을지언정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새롭게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친근한 돌사람’이기에 허물없이 애정을 주고받는 존재로 수용할 수 있다. 돌사람을 우러러보거나 터부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까지는 계기가 필요했다. 탐라목석원을 이어 2006년 문을 연 제주돌문화공원 꽃자왈에 제주의 정령처럼 모아놓은 동자석 전시가 그러했다(그림 10). 돌에 새긴 사람의 형상, 제주 동자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오래된 돌사람과 나누는 말 없는 대화 속에서 삶을 성찰하고 위안을 받기를 소망한다.



그림 10. 제주돌문화공원 내 동자석

상에 관한 연구: 묘소의 동자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0(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pp. 143-192; 강정호, 『화산섬, 돌 이야기』(제주: 도서출판 각, 2000);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제주: 파피루스, 2003); 이창훈, 『제주동자석 I』(제주: 제주콤, 2007); 강윤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동수(김유정), 「제주도 동자석 연구: 풍토미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창훈, 「17~18세기 제주지역 墳墓石人像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MEMO

MEMO